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02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4월 5일 (음력 2월 29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5(土)	6(日)
구름 조금 7/22℃	흐리고 비 9/17℃

News

- 이건희 회장 특검 출두 ②
- AI 전남 확산 방지 비상 ③
- KIA 주말 노장투혼 기대 ⑱

Books

- '우리 고전 캐릭터…' ⑭

Entertainment

- 스타 가족 전성시대 ⑧
- 중화권 시대극 열풍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장어 ⑬

우암학원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말은 맞는 말인데…" 18대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일 광주공원 앞에 모인 많은 주민들이 남구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격전지 주말 유세 총력전

민주 약세지역 강금실·박재승에 'SOS'
한나라 강재섭·원희룡·김덕룡 호남 누벼
이희호 여사 투표날까지 목포·무안 상주
목포 정영식·이상열 단일화, 해남 '돈 파문'

총선 D-4

4·9 총선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각 후보 진영은 마지막 주말 대회전을 통해 승기를 굳히거나 막판 뒤집기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불꽃 튀는 유세전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유권자의 30~40%에 이르는 부동층의 상당수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최종 지지 후보를 결정할 예상됨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는 모든 조직을 총동원, 숨겨진 표심 잡기에 나서는 것은 물론 기존 지지층 다지기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여기에 광주·전남의 무소속 벨트 지역구는 후보단일화(목포), 선거법 위반 혐의(해남·진도·완도) 등 각종 돌출 변수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주말 대회전을 계기로 선거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4일 광주·전남지역 각 후보 진영에 따르면 공식 선거 마지막 주말 대회전에서 총력전을 펼쳐 판세 굳히기 및 뒤집기에 나선다.

우선 민주당 후보들은 당 지도부가 이번 주말 수도권 지원 유세에 집중함에 따라 같은 지역의 후보들과의 연대 유세 등을 통해 '한나라당 견제론'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주말인 5일 정세균 전 의장과 광주지역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 강세 지역인 광주 남구에서 총력전을 펼친다. 특히 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은 강금실 선대위 공동위원장과 박재승 공심위원장 등의 광주 전략지 지원 유세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남구 지원 사격을 통해 무소속 바람을 잠재우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3일과 4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원희룡 의원 등 당 지도부가 호남 지원 유세를 벌인데 이어 김덕룡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5일 광주·전남을 방문,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벌인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평화통일가정당 후보들도 차별화된 공약 등을 내세우며 이번 주말 바닥 표심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광주·전남의 '무소속 벨트' 지역구는 이번 주말 통합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전면전이 예고되면서 막판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목포에서는 통합민주당 정영식 후보와 무소속 이상열 후보가 4일 전격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선언함에 따라 무소속 박지원 후보 우세 국면의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진도·완도 선거구도 전남도 선관위가 지난 3일 유력 후보와 부인, 측근 등을 검찰에 고발, 검찰이 수사에 나섬에 따라 선거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도 4일 광주를 방문, 광주 북구갑 선거구 무소속 한화갑 후보 지원유세를 한데 이어 5일에도 지원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부인 이희호 여사도 4일 무안·신안을 다시 방문, 주말과 휴일 DJ의 차남인 무소속 김홍업 후보의 지원 유세를 벌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이소연씨 가족 위성 발사 참관 러시아행

"자랑스런 한국의 딸 성공적인 비행 되길"

한국 우주인 탄생 D-3

"AGAIN KOREA BLAST-OFF."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광주시 서구 광천동)씨의 성공적인 우주비행을 기원하는 응원의 함성이 바이코누르 발사장을 뒤흔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4일 "이소연씨의 안전과 성공적인 우주비행을 기원하기 위한 '한국 우주인 우주비행 참관단'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로 6일 오후 2시 출국해 3박5일 동안 활동한다"고 밝혔다.

참관단은 박종구 교과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통합민주당 홍창선 의원,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백홍열 항우연 원장, 우주인 가족(이소연씨 부모와 여동생, 고산씨 어머니와 여동생) 등으로 구성됐다.

또 고흥군의 추천을 받은 순천고 오승룡(15·1년) 군 등 학생응원단 4명과 일반응원단 6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우주비행 응원단도 참관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7일 바이코누르 우주 발사장을 방문해 러시아의 우주기술을 체험하고, 8일 오후 8시16분(현지시각 오후 5시16분)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소유즈 우주선을 탑승하는 순간을 참관하게 된다. 9일에는 한국과 소형위성발사체(KSLV-1)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흐루니체프사를 시찰하고, 모스크바 한국학교를 방문해 우수과학도서 및 실험기자재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주비행 응원단은 '다시 일어서는 한국'과 오는 12월말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한국 최초 소형위성발사체(KSLV-1)의 성공 발사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AGAIN KOREA BLAST-OFF'를 구호로 대형 태극기와 응원 현수막, 스카프 등 응원도구를 활용해 다채로운 응원을 펼친다.

이소연씨 어머니 정금순(57)씨는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연이의 성공적인 우주비행과 무사 귀환을 빌어달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